

국내 친환경 자동차 보급현황

1. 국내 현황

-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친환경 자동차 보급정책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 실적이 저조
- 정부의 적극적인 친환경 자동차 보급 정책 추진과 환경 문제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관심 증가에도 불구하고,
- 내연기관 자동차의 편리성, 친환경 자동차의 충전소 부족과 비싼 차 가격, 전기차의 주행거리와 충전시간의 문제 등으로 친환경 자동차 보급은 하이브리드차량을 제외하고 정부의 보급 목표에 미치지 못함

<국내 자동차 연료별 보급대수 추이>

— 2016년 기준 —

구 분	가솔린	경 유	LPG	전 기	CNG	하이브리드	기 타	합 계
서 울	1,596,819	1,107,727	317,469	1,498	9,854	44,875	4,765	3,083,007
부 산	623,458	511,623	128,769	366	3,170	13,933	13,997	1,295,316
대 구	544,774	441,660	125,992	344	2,737	12,920	2,384	1,130,811
인 천	643,403	617,495	149,318	207	2,756	14,347	9,847	1,437,373
광 주	280,344	253,159	89,093	239	1,502	6,630	2,408	633,375
대 전	317,153	246,249	74,585	74	1,696	6,178	2,149	648,084
울 산	268,976	217,523	41,899	103	838	5,272	4,109	538,720
세 종	54,020	44,697	9,587	25	45	1,725	261	110,360
경 기	2,455,515	2,176,209	443,706	650	8,847	60,224	15,770	5,160,921
강 원	305,008	340,503	66,937	150	954	6,752	2,029	722,333
충 북	328,060	348,806	72,912	60	716	6,624	3,523	760,701
충 남	435,137	475,230	90,258	170	548	8,617	5,243	1,015,203
전 북	350,073	408,599	98,616	57	1,080	7,396	3,181	869,002
전 남	349,780	476,446	109,639	446	1,058	7,349	7,286	952,004
경 북	584,869	615,003	134,756	278	1,237	10,420	7,091	1,353,654
경 남	760,944	692,287	149,318	559	1,829	14,398	5,909	1,625,244
제 주	194,066	197,240	64,240	5,629	13	5,556	499	467,243
전 국	10,092,399	9,170,456	2,167,094	10,855	38,880	233,216	90,451	21,803,35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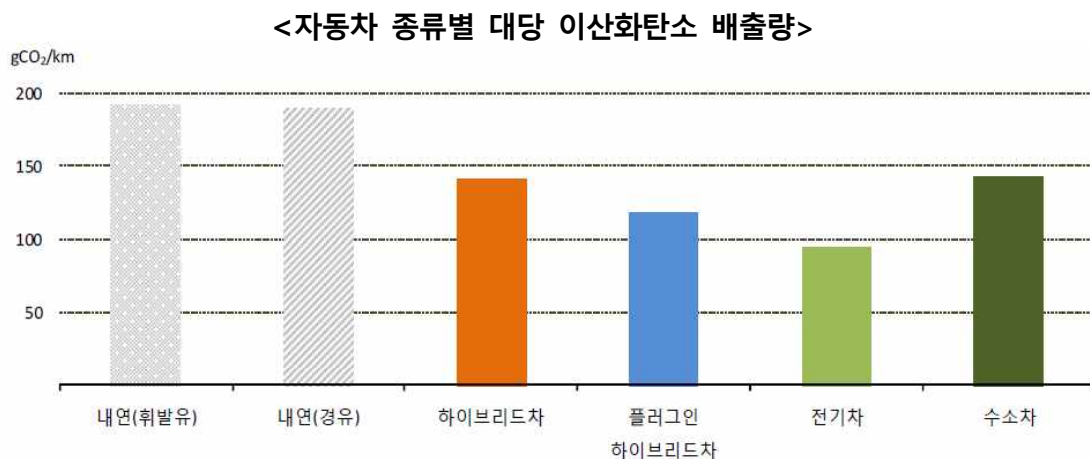
• 자료 : 국토교통부, 기타연료에는 LNG, 수소연료, 무동력 등이 포함

- 정부는 '15년 12월 '제3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 ('16~'20)'에서 '20년까지 친환경 자동차 100만대 보급을 목표로 세웠으며, '16년 6월에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보급 목표를 150만대로 확대함
- 2016년 말 국내 자동차 보급 대수는 2,180만대이고, 친환경 자동차 보급은 37.3만대로 약 1.7%에 불과함
- 친환경 자동차 중 하이브리드 자동차(PHEV 포함) 보급 대수는 23.3만 대로 비중은 62.4%

2. 기대 효과

□ 친환경 자동차 보급은 에너지 수급보다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에 더 효과적

- 전기차는 대당 94.1 gCO₂/km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여 휘발유 자동차 대비 대당 98.1 gCO₂/km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고, HEV, PHEV, FCEV는 휘발유 자동차 대비 대당 각각 51.2 gCO₂/km, 74.2 gCO₂/km, 49.1 gCO₂/km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짐



주: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과정(life cycle analysis)평가(원유추출, 원유수입, 석유정제, 국내분배, 발전, 자동차운행단계) 결과
자료: 환경부

* 이 보고서는 대국민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.